세화리움은 세화와 아리움(공간)의 합성어로 세화에서의 아름다운 공간 혹은 세화스러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일상에서 벗어나 툇마루에 앉아서 커피 한잔하며 조용하게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입니다. 핸드 드립 커피를 맛볼 수 있는 플라워 카페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. 플라워 카페에서는 계절마다 다른 꽃으로 미니 부케를 만드는 원 데이 클래스가 열려요. 완성된 미니 부케는 해변에서 사진 촬영할 때 활용할 수 있어 인기가 높아요.

"제가 10년 전 이곳 올레길을 걸은 적이 있는데 그때 세화리에 반했어요. 관광지가 아닌 제주도 시골 마을의 느낌을 그대로 체험할 수 있었어요. 그 후 세화에서 하룻밤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. 저 생각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에서 아이도 낳고 살게 된 지 벌써 8년이 되었네요. 세화리에서의 하루하루를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."

세화리움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9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-26

숙소의 특별한 점

• 말린 꽃들이 예쁘게 걸려있는 캐나다의 어느 시골집 같은 주방 공간

• 주인장의 취향을 느낄 수 있는 공용공간의 책과 편안한 소파

• 걷다 보면 만나게 되는 아기자기한 동네 카페와 소품점

• 푸르른 아름다움이 인상적인 세화 해변

이런 여행객에게 추천

• 고요한 쉼을 위해 서로 배려하며 편안하게 게스트하우스에서 묵고 싶은 분

• 슬리퍼를 신고 동네를 거닐며 여유롭고 한적한 여행을 즐기고 싶은 분

• 해변에 누워 파도 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낮잠을 청하고 싶은 분

알아두면 좋은 사항

• 버스정류장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요.

• 편안한 아침을 위한 조식을 제공해요.

• 36개월 미만 아이와 동반할 경우, 가족룸을 이용해 주세요.